

포스트모더니즘과 계획의 미래: 합의와 탈주 사이의 왕복

Postmodernism and Future of Planning:
Back-and-forth motion of consensus and flight

이상현*

이 글은 근대적 계획이론에 대한 비판의 자원으로서 근대적 합리성에 대한 포스트모더니즘의 도전을 고찰하고, 고찰결과를 토대로 근대적 계획이론의 발전 방향에 대해 제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근대적 사유 방식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근대적 주체, 즉 사고하는 주체의 발견인데,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은 이 주체가 지식이나 권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지식이나 권력에 의해 주체가 오히려 형성된다고 주장함으로써 근대적 사유의 근간을 흔든다. 한편, 근대적 주체철학에 대한 비판을 다른 식으로 수행하는 모더니스트들은 모더니즘의 진화를 통해 주체철학을 지양하고자 하였다. 이런 주장을 가장 명확하게 드러낸 것이 하버마스의 형식적 화용론이라고 할 수 있다. 그의 언어적 의사소통 패러다임은 항상 세계 속의 그 무엇에 대해 타자와 이해 도달에 이르는 이중구조를 가짐으로써 주체가 담론을 통해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하버마스의 형식적 화용론은 무의식, 욕망의 문제를 포괄하기 어려운 약점을 갖는다. 이러한 지점에서 푸코의 지식-권력 논의와 들뢰즈, 가타리의 탈주 개념은 상보적 역할을 갖는다. 우선 푸코는 권력행사를 가능한 행위들의 장을 구조화하는 방식이라고 정의를 내리는데, 이 권력행사의 장이 바로 배치(disposition)이다. 근대적 국가는 통치와 치안이라고 하는 배치를 통해 권력을 행사하는데, 국가권력은 개인의 의지를 반영하고 대의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들이 국가권력의 의지를 대행하고 실행한다. 그런데 권력, 즉 억압

* 한국환경자원공사 국제정책연구센터 부장(sanghunl@yahoo.co.kr)

과 규율이 필요하다는 것은 뭔가 권력 이전에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권력에 앞선 욕망, 그리고 욕망에 의한 탈주의 힘에 주목하게 된다. 들뢰즈와 가타리에 의하면 욕망은 역사적이다. 즉, 특정한 역사적 조건에 의해 가변적으로 변하는 특정한 욕망 혹은 특정한 욕망의 배치만이 존재한다. 이때 주체는 특정한 배치에서 형성된 욕망의 담지자가 되는데, 이것을 영토화된다고 한다. 모든 배치는 욕망의 흐름을 영토화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게 되는 동시에 (탈)영토화된다. (탈)영토화는 배치 속에서 다른 방식을 구상하고 욕망하는 것을 의미하며, 권력의 지대를 횡단하면서 끊임없이 생성한다는 점에서 유목(nomad)라고 불린다. 그러므로 공공계획이 국가적 권력/욕망의 배치라면, 계획행위는 이 배치의 재생산과 창조 사이의 긴장 가운데, 즉, '합의'와 '탈주' 사이의 왕복운동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주요어: 근대적 계획, 주체, 권력, 배치, 탈주

1. 들어가며

전 지구적인 자본에 포섭되어 화폐가치만이 전횡하는 한국 사회¹⁾에서 이른바 아무런 실익이 없어 보이는 '계획이론'을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 숙된 말로 계획이론이 밥 먹여주냐는 것이다. 게다가 근대적 계획이론에 대한 비판의 자원으로 사용되었던 혹은 사용되고 있는 포스트모더니즘²⁾을 고찰해 보는 것은 차라리 사치스러운 현학적 취미라고

1) 한국 사회에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 문제를 다룬 최근의 TV 다큐멘터리에서는 한국을 '돈 공화국'이라고 지칭하였다(<PD 수첩>, 2006년 11월 2일자).

2) 포스트모더니즘, 포스트구조주의, 후기구조주의, 탈구조주의 등은 사실 구분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컨대 이정우(1998)는 포스트모더니즘은 영미의 문예사조이고 포스트구조주의는 프랑스 철학 전통을 가리키는 말이므로 엄격하게 구분해서 사용하자고 주장한다. 이정우의 논의를 따르자면 이 글에서는 주로 포스트구조주의자들의 논의를 다루고 있으므로 논문의 제목을 수정해야 하겠지만 일단 모더니즘에 대한 비판의 성격을 견지한다는 공통점을 가진다는 점에서, 그리고 대중적으로 널리 수용되는 용어라는 점을 고려하여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

취급되기 알맞다. 그러나 대규모 자본투기가 횡행하고 있는 가운데, 대도시 내부의 소수자 운동, 자생적 커뮤니티 형성 시도, 대안문화운동 등이 나타나 획일적 자본운동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색다른 위반을 시도하고 있는 경험들을 목격할 때,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고찰은 전혀 무의미한 과제는 아닌 것처럼 보인다.

그럼 우리는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던질 수 있을까? 포스트모더니즘이 사실은 무엇이었냐고 물어야 할까, 아니면 왜 지금, 그리고 어떻게 포스트모더니즘을 살펴보아야 하는가 하고 물어보아야 할까? 두 가지 방식의 질문이 다 중요하지만, 현실적 유용성을 따져보면 후자의 질문이 더 쓸모 있다. 전자의 질문은 동시적이고 정태적인 질문인 반면, 후자의 질문은 통시적이고 동태적인 질문이므로 우리로 하여금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개념에 대한 천착보다는 왜 오늘날 이런 개념이 등장하고 확산되었는지, 이것을 통해 우리 삶에 무슨 문제가 제기되며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를 촉구하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고찰은 낯선 이국의 벼룩시장을 걸어 다니는 경험과 유사하다. 이 벼룩시장에는 특별한 질서도 없고, 구획정리도 되어있지 않으며, (이방인인지라 모르기 때문에) 정체를 알 수 없는 진열품이 중구난방으로 나열되어 있어서 그 배경을 가늠하기도 어렵다. 이 시장에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무엇인가를 건지기 위해서는 시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말을 배우고, 그들과 소통을 해야 하고, 소통을 통해 경험을 나눔으로써 서로를 이해해야 한다. 특정한 주제가 있다면 더 소통이 잘될 뿐만 아니라 혼란한 벼룩시장에서 짹짹한 수확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은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외국의 한 벼룩시장을, 근대적 공공 계획 혹은 계획이론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보려는 제한된 관심을 가지고 어슬렁거린 산만한 기록이다. 그러나 여행일정이 짧은 탓에 벼룩시장을 제대로 둘러보지도 못했으며, 선택한 주제는 시장에서 들고 다니기에는 너

무 무거운 짐이었다. 어쩔 수 없이 피상적이고 어설픈 기록이라고 미리 고백하는 수밖에 없겠다.

이 기록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우선 근대적 계획 혹은 계획이론의 등장과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간략하게 살펴본다. 그리고 근대적 계획 혹은 계획이론에 대한 비판의 지적 자양분으로 사용된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징들을 간략하게 스케치할 것이다. 이 스케치는 근대적 사유를 비판하는 이들의 철학적 주장을 중심으로 수행되었다. 그리고 나서 이에 대한 모더니즘의 재비판을 살펴보았다. 특히 근대적 사유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계몽의 프로젝트를 좀 더 진화시켜 가려는 입장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비판과 포스트모더니즘의 정치철학이 공존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고찰을 근거로 하여, 포스트모더니스트적 비판을 염두에 둔 공공계획(이론)의 향후 궤적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하는 것으로 기록을 마무리하였다.

2. 본론

1) 근대적 계획에 대한 문제제기

일반적으로 근대적 계획은 합리적 계획모형을 따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합리적 계획모형에 따른 계획이란 일련의 합리적 선택을 통하여 미래에 어떤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적절한 행동의 순서를 결정짓는 과정이다(Faludi, 1973). 여기서 언급되는 합리성은 절차적 합리성, 도구적 합리성, 기술적 합리성을 의미하며, 이 합리성들이 서로 배타적인 것은 아니다(장욱, 1992: 73). 다만 정치적 합리성보다 이 세 가지 합리성이 우위에 있어서 정치적으로 비판적 거리를 유지한다고 한다(Beauregard, 1989. Campbell and Fainstein, 1996: 218에서 재인용). 또한 자본주의 도시화과정에 합리성과 민주주의를 도입하려고 하며, 경제성장을 통해서 사회갈등을

해소하려고 한다는 것이다(노동계급의 부르주아화 기도). 합리적 계획모형이 이런 경향을 띠는 이유에 대해서는 합리적 계획모형이 사회체제로 사유재산에 바탕을 둔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정치이념으로 자유민주주의를 각기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진단도 있다(장욱, 1992: 75).

이러한 합리적 계획모형에 대해서는 다양한 비판이 제기되었는데, 초기에 제기된 비판들은 주로 이 모형에서 사용하고 있는 합리성의 한계에 대한 비판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즉, 합리성이 인식능력 측면에서, 조직적 특성 때문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제약조건을 고려하여 계획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 ‘부분적 점진주의모형’, ‘혼합주사모형’, ‘거래계획모형’, ‘옹호계획모형’ 등이 합리적 계획모형에 대한 비판으로 제기된 계획모형들이다(Lindblom, 1959; Etzioni, 1968; Friedman, 1973; Davidoff, 1965).

문제는 이러한 계획모형들이 합리성에 대한 비판이긴 하지만 매우 부분적인 비판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부분적 비판에 근거하여 형성된 좀 더 세련된 계획모형들은 근대적 합리성 자체에 대한 근본적 문제제기를 시도하고 있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쓰나미’ 앞에 입을 잃고 말았다. 아래에서는 과연 이렇게 위협적인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개괄적으로 스케치해 보기로 한다.

2)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스케치

(1) 관점으로서의 포스트모더니즘

근대성이란 상호 갈등하는 가치의 모순적 통합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한편으로는 사회적으로 진보적, 합리주의적, 경쟁적, 기술공학적인 근대성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가치들을 탈신비화시키는 경향이 있는, 문화적으로 비판적이며 자기비판적인 근대성이 동시에 존재한다(칼리니스쿠, 1993: 329). 근대성의 이러한 양면적 특성 혹은 모순적 결합을 인정한다면 뚜렷한 특징을 가진 포스트모더니즘을 찾는다는 것은 가능

한가? 포스트모더니즘은 근대성의 연속인가 아니면 단절인가?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개념의 난맥상은 이 용어가 대중적으로 사용되면서 해명의 어려움을 더 가중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스트모더니즘을 모더니즘 스타일이나 특징을 비판하는 것으로만 설정하는 것은 포스트모더니즘의 문제의식을 매우 제한하는 것이다. 또한 포스트모더니즘을 시대구분의 하나로 보는 것은 그 안에 존재하는 다양한 시도들 혹은 모순되는 방식들을 무시하거나 훼손시킬 가능성도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해 볼 때, 포스트모더니즘을 “새로운 ‘현실’ 혹은 ‘정신구조’ 혹은 ‘세계관’을 칭하는 새로운 이름이 아니라 갖가지 형태로 구현된 모더니즘에 관해 어떤 질문을 던질 수 있게 해주는 하나의 관점”으로 보자는 칼리니스쿠의 지적은 논의의 출발점으로서 유효할 것으로 보인다(칼리니스쿠, 1993: 343). 그러면 포스트모더니즘은 근대성에 대해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는가?

다양한 포스트모더니즘 논의³⁾ 가운데서 확고부동한 지위를 누리게 된 저서는 1979년에 출간된 리오타르(Lyotard)의 『포스트모던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포괄적 안내서로서 포스트모던 예술, 포스트구조주의 철학,⁴⁾ 탈산업사회론 등을 하나로 묶어서 포

3) 예컨대 장 보드리야르(Jean Baudrillard)의 소비사회 논의는 중요한 포스트모던 사회이론이다. 소비사회 논의에서는 생산이 지배하던 사회에서 소비가 지배하는 사회로의 전환, 상품의 사용가치에서 기호가치로의 전환을 보여주고 있다. 더 나아가 보드리야르는 시뮬라시온론을 언급한다. 포스트모던의 시대에는 실재와 복제의 구분과 경계가 모호해져서 원본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가 나온다. 이것이 만들어내는 스펙타클을 보드리야르는 초실재(hyper-reality)라고 부르고 이것이 포스트모던 사회의 특징이라고 주장한다(보드리야르, 1992a; 1992b).

4) 포스트구조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의 경우 많은 공통점이 있긴 하지만, 문학의 경우 포스트구조주의의 근대철학 비판과 근대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철학적인 주체 범주나 인간에 대한 비판, 근대적 주체를 생성해내는 메커니즘에 대한 비판 등)은 문학적 모더니스트들(카프카, 조이스, 프루스트 등)의 근대적 표상 해체와 유사성이 많다. 그래서 포스트구조주의 철학자들이 이들의 작품에 의거해서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이진경, 2003: 416). 한편, 포스트모더니즘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데리다, 들뢰즈, 푸코 등을 따로 떼어내서 포스트구조주의자로 부르고, 오히려 이들의 작업이 모더니즘에 기대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스트모더니즘에 대해 나름대로 체계적인 서술을 제시하였다. 리오타르는 모던한 것에 대비하여 포스트모던한 것은 모더니즘의 거대 서사, 총체성, 보편성에 대한 회의이자 비판이며, 보편성에 의해 억압되었던 다양성을 명시적인 규칙으로 전면에서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모든 근대적인 ‘진보’와 ‘계몽’의 기획은 붕괴되었다는 것이다(리오타르, 1992).

진보가 실현 가능하고 필수적이라는 이러한 생각은 예술, 기술, 지식과 자유의 발달이 인류 전체에 유리하다는 확신에 뿌리를 두고 있었다. 2세기가 지난 지금 우리는 그 정반대를 의미하는 기호들에 더욱 민감하다. 살벌했던 지난 2세기 동안 나타난 경제적·정치적 자유주의는 물론, 여러 종류의 마르크스주의조차도 인류에 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벗을 수 없다. 어떤 종류의 사상이 보편적 해방을 향한 일반적(경험적이든 사변적이든) 진보 과정에서 아우슈비츠를 지양할 수 있겠는가?(Lyotard, 1985: 6. 캘리니코스 1994: 24에서 재인용).

한때 트로츠키주의 전사로서 《사회주의나 야만인가(Socialisme ou Barbarisme)》라는 잡지를 발간하고 맹활약했던 리오타르의 발언이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충격적인 변신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과연 근대성의 어떤 측면들이 이렇게 과격한 선고를 받아야만 하는 걸까? 아래에서는 근대성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측면 중에서 근대성을 떠받치고 있는 철학적 전제들, 근대적 사유를 가능케 한 중요한 전제들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포스트모더니즘의 비판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그 이유는 이 글의 주제가 계획 및 계획이론 특히 국가권력의 행사와 관련된 공공계획의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다른 문예사조나 건축양식 등에 비해 철학적 측면이 더 직접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캘리니코스, 1994: 108). 그러나 포스트구조주의를 포스트모더니즘과 동일시하는 것만큼이나 이들을 모더니스트로 규정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

(2) 근대성의 철학적 전제들에 대한 비판: 주체의 문제를 중심으로

근대적 사유방식을 가능케 만든 철학적 전제 중에서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의 비판을 받고 있는 것 중에서 중요한 범주들은 주체, 재현, 진리, 총체성 등과 같은 것이다. 이 범주들이 다 중요하긴 하지만 주로 ‘주체’의 문제를 중심으로 비판이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비판도 이 문제를 다르게 해석하는 것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근대적 공공계획 및 계획이론의 미래와 관련해서도 이러한 논박과정에서 시사점이 가장 두드러지기 때문에 아래에서는 주로 주체의 문제를 중심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근대적 사유의 시작은 데카르트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당시의 경험과학의 눈부신 발전은 신학적·형이상학적 질서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즉, 인식의 정당성을 보증해 주던 신학적·형이상학적 질서는 새로운 경험과학의 발견으로 인해 의심받기 시작했다. 이제 과학적 발견에 의한 경험을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경험이 모든 사유의 근거가 되는 것도 불안한 상황이 되었다. 데카르트는 새로운 과학적 지식이 기초될 수 있는 확실한 인식의 기초를 찾고자 하였고, 그가 택한 방법은 방법론적 회의였다. 그는 모든 것을 의심해 보았다. 나의 신체,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등등…… 그러나 모든 것을 의심할 수 있어도, 의심하고 있는 자신이 존재한다는 것은 의심할 수 없다. 그 결과 데카르트는 널리 알려진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명제를 제시하였다. ‘나’라고 하는 주체는 어떤 의심도 견뎌낼 수 있는 사유의 근거이며, 여기서부터 확실한 지식을 세울 수 있는 것이다. 데카르트가 생각하는 확실한 지식의 근거는 수학적 이성이었고, 모든 것을 수학적화함으로써 확실한 인식을 획득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로써 중세의 신학적·형이상학적 질서를 가능케 했던 계시를 넘어서서 이성에 기초한 근대의 논리적 기초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⁵⁾

5) 굳이 논리의 기초라고 한 것은 근대적 논리의 본격적인 전개는 칸트의 “이성에 의한 이성비판”이라는 반성적 구조가 도입된 이후라고 보기 때문이다. 이에 대

이렇게 탄생한 근대적 ‘주체’ 범주에 대한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의 비판을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비판의 핵심적 내용을 요약해 보면, ‘주체’란 선형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만들어지는 것, 즉 ‘주체화’된다고 하는 것이다. 저자들마다 차이가 있지만 거칠게 이야기하자면, 대체로 이런 비판이 가능했던 것은 페르디낭 소쉬르(Ferdinand Saussure) 등의 구조주의 언어학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소쉬르의 언어학에 따르면 의미는 내가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나 이전에 이미 구조로서 존재하는 것이다. 즉, 나는 이미 존재하는 언어의 망 속에 들어갈 뿐이며 그 속에서 존재하는 규칙에 따라 기호를 사용할 뿐이며, 의미란 기호들 간의 의미작용(signification) — 기표들 간의 차이 — 의 결과이다(이정우 1998: 26~34).

자크 라캉(Jacque Lacan)은 구조주의 언어학을 정신분석학에 도입하여 언어와 주체의 관계를 뒤집음으로써 근대적 주체 범주를 해체시킨다. “내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 나를 통해 행해지는 것”이다. 정신분석학자였던 라캉은 구조주의 언어학을 정신분석학에도 접목시켜서 무의식이 언어처럼 구조화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이 말은 프로이트식의 정신분석학에서 욕망과 충동으로만 그려졌던 무의식이 언어적 구조를 통해서 — 혹은 욕망의 동력학과 언어적 구조의 병립에 의해서 — 작동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언어가 욕망의 하부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며, 욕망이 (기표로 이루어진) 상징계를 통해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라캉이 보기에 개인은 무의식이 전달해 주는 타자의 메시지(이미 존재하는 언어적 질서, 문화적 구조 등)에 동일시함으로써 주체로 거듭나게 된다. 사고와 욕망은 무의식의 구조 안에서 행해지며 이것을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므로 무의식은 ‘타자’의 담론이며, 이렇게 보자면 주체는 결국 메시지의 발신인이 아니라 수신인인 셈이다(이진경, 2003: 81). 그래서 라캉은 데카르트의 명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를 비틀어서 “나는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생각한다. 고로 나는 생각하지 않는 곳에 존재한다”

해서는 다음 절에서 다시 언급할 것이다.

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다(라캉, 1994).

한편, 미셸 푸코(Michel Foucault)는 역사적인 사례들을 통해 근대적 ‘주체’가 형성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푸코가 견지하고 있었던 문제의식은 근대적 사유의 전제들, 특히 표상이나 지식 그리고 권력을 인간이 소유하고 있다는 전제들에 대한 것이었다. 푸코는 인간이라는 주체가 표상, 지식, 권력을 소유한다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인식의 전제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추적하였다. 그는 인간을 주체화하는 상이한 방식들에 주목하였고, 이를 자신의 평생의 연구 과제로 삼았던 것이다. 이를 푸코 자신의 말로 확인해 보자.

우선 지난 20년 동안 해왔던 내 작업의 목표가 무엇이었는지를 말하고 싶다. 내 목표는 권력현상을 분석하는 것도, 그러한 분석의 기초를 제공하는 것도 아니었다. 오히려 나는 우리 문화에서 인간이 (주체로) 되는 주체화(subjectivation)의 상이한 방식들의 역사를 생산하려고 했다. …… 따라서 내 연구의 일반적 주제를 이루는 것은 권력이 아니라 주체다(드레피스·라비노우, 1989: 297).

푸코가 보기에 근대적 주체란 특정한 질서 안에서 사고하고 행동하도록 강제하며 길들이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변형 방식을 연구하고자 했던 것이다. 처음에는 주체를 형성시키는 담론의 질서(『말과 사물』로 대표되는)에 연구의 중심을 두었다가, 점차 담론으로 환원되지 않는 다양한 조건들을 통해 주체화시키는 방식, 즉 규율, 감시, 감옥 등 권력이 행사되는 다양한 방식(『감시와 처벌』로 대표되는)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⁶⁾

푸코의 주체철학에 대한 비판은 크게 세 가지 측면(혹은 세 번의 전환점)에서 이루어졌다(이진경, 2003: 139~141). 첫째, 푸코가 보기에 개인들이

6) 초기의 담론의 질서를 밝히려 했던 작업에는 ‘고고학’이라는 이름이 붙었고, 나중에 비담론적인 것, 즉 권력에 대한 연구로 이전했을 때는 ‘계보학’이라는 이름이 붙여진다.

‘주체’로서 사고하는 것은 인식이나 사고가 그 위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조건들(이것을 담론(혹은 담론의 질서)이라고 할 수도 있고, 에피스테메(인식소)라고 할 수도 있다) 속에서이며, 이 담론이나 에피스테메가 개인들을 특정하게 사고하고 판단하는 주체로 만든다는 것이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라캉의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바가 있지만, 라캉의 논의가 주로 가족 내에서 이루어지는 주체화의 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푸코의 논의는 더 확대된 사회 속에서 발생하는 주체화의 문제에 초점이 있다고 하겠다.

둘째, 푸코가 보기에 권력이란 어떤 주체가 소유하고 행사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개인들이 특정한 방식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도록 강제하는 권력 — 이것을 ‘기율권력’이라고 하든 ‘생체권력’이라고 하든 — 에 의해 사고하고 행동하게 되는 것이다. 이제 푸코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물질성의 기반위에서 주체가 형성되는지를 찾는 것이다.

셋째, 권력이 개인에게 소유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푸코는 근대적인 권력관계(권력행사를 통해 구조화되는 관계)와 권력기술(권력행사를 위해 선택된 수단의 집합)에서 개개인이 벗어나 새로운 양식의 주체를 스스로 구성해 내는 길을 찾고자 하였다.⁷⁾ 푸코는 금기, 규칙, 가치 등으로 이루어진 규약 중심적인 근대적 도덕에 비해서 욕망이라는 윤리적 실체를 긍정하는 윤리지향적 도덕을 주장하였으며, (타인에 대한 배려를 전제로 하는) ‘자기에 대한 배려’를 새로운 주체화 양식으로 제기하고자 하였다.⁸⁾ 이것은 욕망을 예측화시키는 근대의 도덕에 대한 계보학적 비판이라고 할 수 있다.

7) 권력관계, 권력행사, 권력기술 등의 의미는 3절에서 다시 재론될 것이다.

8) 이런 주체화 양식이 다시 근원적 범주로서 주체를 도입하자는 것은 아니고, 근대적 주체 만들기에 대한 저항 정도의 의미로 이해된다. 푸코에 대해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 중의 하나인 들뢰즈는 푸코의 ‘주체화’에 대해 지식과 권력을 넘어서 스스로를 산출하는 것, 새로운 지식과 권력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작용을 의미한다고 해설한 바가 있다(들뢰즈, 1995).

3)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비판: 모더니즘의 진화에 의한 주체철학 지양

포스트모더니즘의 스펙트럼이 넓고 다양하듯, 이에 대한 비판도 저자들의 지적 배경이나 정치적 입장에 따라 다양하게 전개되었다(예를 들어 정치학의 켈리니코스(1993), 사회학의 기든스(Giddens, 1990), 지리학의 하비(1994) 등). 여기서는 위에서 살펴보았던 포스트모더니즘에 깔린 철학적 전제 중에서 ‘주체화’에 대한 논의를 둘러싼 비판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좀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자면 ‘모더니스트들의 비판’ 혹은 모더니즘에 대한 옹호라고 이름 붙일 수도 있겠다.

(1) 계몽의 프로젝트와 칸트의 이성비판

모더니즘을 옹호하는 이들은 근대의 계몽이 기획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는데, 포스트모더니즘과 관련하여 이들의 주장을 요약해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첫째는, 일세대 비판이론가들(호르크하이머, 아도르노 등)이나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이 밝힌 것처럼 계몽의 시대를 열었던 근대적 이성애 어두운 측면이 있지만, 이러한 그늘 역시 근대적 방식, 즉 새로운 합리성의 추구로 극복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둘째, 근대의 비판문법 속에서 발견되는 비판과 정당화의 연결고리는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어떤 것에 대한 비판이 타당성을 얻으려면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원리에 의해 정당화되어야 한다. 동시에 그 정당화 논리는 자신의 정당성의 기초가 되는 논리까지 회의해 볼 수 있는 급진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만일 정당화를 절대화하면 독단에 빠지고, 비판을 절대화하면 급진적인 회의주의에 빠진다. 그런데 포스트모더니즘은 정당화 논리가 비판의 힘을 억압하고 보편적 합리성이 개별성을 억압한다면 정당화를 거부하기 때문에 급진적인 회의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모더니즘이 이렇게 계속 합리성과 비판의 문법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

은 칸트가 구축한 근대적 비판의 논리에 이들이 기대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지적하였듯이 근대적 사유를 개척한 것은 데카르트지만, 근대적 논리를 최초로 완성시킨 사람은 칸트였다. 칸트가 완성시킨 근대적 논리는 이성의 반성적 구조를 확립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이성의 일반 능력에 대한 이성적 비판이 바로 『순수이성비판』에서 칸트가 추구했던 바이다. 이것은 데카르트가 수행했던 “이성을 사용한 비판”과 다르게 “이성에 대한 비판”(계몽의 계몽)을 의미한다.

우리의 시대는 모든 것을 비판에 회부해야 하는 고유한 비판의 시대이다. 종교는 그 신성함을 통해, 입법은 그 위엄을 통해 비판을 면제받으려고 한다. 그러나 그것은 당연히 의심을 불러일으킬 뿐, 거짓 없는 존경을 요구할 수 없다. 이성만 오직 자신의 자유롭고 공개적인 검사를 견뎌낼 수 있는 것에 대해서만 거짓 없는 존경을 허용한다(Kant, Werke 3: 13. 박영도, 1994: 28에서 재인용).

칸트의 이성비판은 스스로 법정 모델에 비유하듯이 이성의 공개적 사용에 의한 이성비판방식을 취하였다. 즉,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태도표명의 자유에 기초한 민주주의적인 질서를 겨냥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성의 모든 시도는 비판받아야 하고, 어떤 금령으로도 비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 효용의 측면에서 아무리 중대하고 또 아무리 신성하다 하더라도 그것들은 이성이 검토하고 음미하는 탐색을 모면할 만한 것은 아니다. 이 (비판적) 탐색은 개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이성의 존재조차도 이런 비판의 자유에 기초하고 있다. 이성은 전제군주의 권위를 갖지 않으며, 이성의 발언은 언제나 자유시민이 찬동하는 것임에 틀림없다. 자유시민은 자신의 의혹을, 그리고 자신의 거부권까지도 기탄없이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Kant, 1989: 519. 박영도, 1994: 46에서 재인용).

당시의 살롱, 커피하우스, 아카데미 등 부르주아 공적영역을 염두에 두고서 제시된 이러한 언급은 오늘날의 독자로 하여금 칸트가 의사소통적 합리성을 선구적으로 제시한 것이 아닐까 하는 착각이 들도록 만든다. 그러나 실제로 칸트가 취한 전략을 보면 자신이 제시한 이성의 법정 모델에서 나타는 상호주관성의 계기를 주관성의 구조로 환원시켜 주체철학적 논술로 귀착시킨다.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칸트가 이성에 의한 이성비판이라는 방식을 취하게 된 것은 경험론처럼 인식의 타당성에 대한 합리적 근거제시 가능성을 부정하는 회의주의에도 대항할 필요가 있었고, 전통적 합리주의처럼 이성 사용의 한계를 반성하지 않는 독단적인 정당화도 피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칸트가 취한 방식은 경험적 객체와 관계를 맺는 동시에 그 관계가 이루어지는 지평 자체를 조직하는 선험적 주체를 상정하는 것이었다. 칸트가 보기에 “나는 생각한다”라는 명제는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는 전제이다. 그러나 이것을 존재론적으로 사유하여 실체화시키는 것은 더 이상의 비판을 가로 막기 때문에 독단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난점을 돌파하기 위해 칸트가 채택한 방식은 이성을 실체론의 원리가 아니라 형식적 원리로 간주하는 것이다. 즉 “나는 생각한다”라는 것은 더 이상 회의할 수 없지만, 존재론 차원에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 원리이기 때문에 독단적 합리주의가 범하는 이성의 선험적 사용의 오류는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박영도, 1994: 42~50).

그러나 칸트의 이러한 선험적 연역은 위에서 말한 것처럼 과도한 정당화의 논리가 아닐 수 없다. 이런 과도한 정당화 논리는 자신이 만들어 놓은 부르주아 공적 영역의 대화의 원리를 오히려 훼손시키고, 상호주관적 계기를 고독한 주체의 자기관계로 환원시킴으로써, 이성으로부터 대화적 구조를 거세시킨 셈이 되었다(박영도, 1994: 52).

오늘의 고지에서 살펴보면, 칸트는 근대적인 주체철학을 체계화시킨 사람인 동시에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도 동시에 제기했다고 볼 수 있다. 즉, 근대적 이성이 가진 독단론과 억압적 구조를 전면화시킨 사

람인 동시에 그러한 억압적 구조를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도 동시에 제기했다는 것이다. 하버마스는 이러한 가능성을 가장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제시하였다. 물론 그에 앞서 헤겔과 마르크스를 통해 칸트의 주체 철학을 극복할 수 있는 변증법적 계기들이 제시되었지만 의사소통적 합리성을 통해 주체철학의 극복방법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하버마스의 논의가 주목받을 만하다는 것이다.

(2) 하버마스의 형식적 화용론에 의한 주체철학의 극복

하버마스는 노동 범주와 상호작용 범주의 엄격한 구분에 터하여 의식의 패러다임에서 언어의 패러다임으로 패러다임 이동을 시도하였다(박영도, 1994).⁹⁾ 하버마스의 언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은 그의 ‘형식적 화용론(話用論)’에서 완성되었다.¹⁰⁾ 그의 형식적 화용론의 핵심적인 과제는 언어행동의 이중구조를 해명하는 것에 있다. 즉, 하버마스는 언어행동 속에 있는 대상 연관(언어와 사태의 관계)과 사회적 연관(타당성 주장과 상호이해의 가능성)을 통합적으로 해명하는 것을 목표로 한 것이다.

의미의 문제를 사회적 실천의 맥락과 분리시키는 것은 고대 그리스철학에서 현대의 분석 철학에까지 이어지는 오랜 전통이었다. 이 전통에서 보면 진리의 문제를 다루는 철학의 영역에서 언어는 대상연관으로만 환원되었는데, 이를 언어적 추상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하버마스는 이러

9) 의식 패러다임에서 언어 패러다임으로의 선회에 대해서 푸코는 다음과 같이 짚막한 술어로 표현하였다. “철학적 주관성의 무너짐, 그것을 박탈하나 자체의 빈틈이란 공간 안에서 증가시키기도 하는 언어내부로의 흠어짐은 아마 현대의 사유가 갖는 기본 구조들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Michel Foucault, 『위반에 대한 서언』. 김현(1989: 103)에서 재인용).

10) 여기서 형식적이라는 관형어가 붙을 수 있는 이유는 그가 형식적 의미론을 비판적으로 극복하면서 화용론을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형식적 의미론의 핵심적 논의는 어떤 문장을 진리로 만들어주는 조건을 우리가 알 때 비로소 그 문장을 이해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즉, 문장의 차원에서 의미와 타당성 조건(진리조건)을 결합한 것이다. 그러나 형식적 의미론은 타당성을 언어사용 규칙의 타당성이라는 사회적 실천 맥락에서 파악하지 않고 명제와 실태의 관계 속에서 파악하여 언어적 추상의 함정에 머무르는 한계를 보였다(박영도, 1994: 259).

한 언어적 추상을 해체하고자 하였다. 즉, 의미가 고독한 주체의 대상연관이나 자기관계 속에서 미리 형성되어 사회적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의미개념 자체가 사회적으로 구성된다는 것이다. 즉, 의미란 상호주관적으로 구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기호와 지시대상의 관계나 주체의 자기관계로 환원될 수 없는 것이다(박영도, 1994: 258).

그러면 의미의 상호주관적 구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에 대해 하버마스는 허버트 미드(Mead, 1962)의 상징적 상호작용론에 의거하여 답변을 제시하였다. 미드는 “의미란 사회적 행동의 특정 단계들의 관계로서 저기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그 무엇의 발전이다. 그것은 그 행동에 대한 심리적 첨가물도 아니고, 전통적 의미의 ‘관념’도 아니다”(Mead, 1962: 76)라고 하였다. 여기서 의미의 발전이란 몸짓이 상징으로 변형되고, 의미의 객관적 기초를 형성하는 행동맥락으로부터 행위자들이 상호주관적으로 공유하는 의미가 생성된다는 것을 말한다. 물론 하버마스는 미드의 ‘의미발전’ 개념을 그대로 수용한 것은 아니다. 하버마스가 보기에 미드의 설명은 객관적 의미구조의 내면화가 진행되는 과정이 상호주관적이라는 점은 보여주었지만 거기서 어떻게 의미의 동일성이 나타나는지 설명하지는 못했다(박영도, 1994: 264). 의미의 동일성은 의미규칙이 존재할 때 가능한 것이다. 왜냐하면 언어적 표현의 의미동일성은 표현사용의 동일성에서 확인할 수밖에 없고, 표현사용의 동일성이 있다는 것은 그 사용이 특정한 규칙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규칙을 설명하기 위해 하버마스는 후기 비트겐슈타인의 통찰을 비판적으로 수용하였다.

비트겐슈타인은 후기 저술에서 언어의 의미를 파악하려면 언어가 사용되는 행동맥락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언어와 행동이 엉켜있는 구조를 ‘언어게임’이라고 불렀다(Wittgenstein, 1978). 이를 통해 비트겐슈타인은 의미동일성과 언어게임 규칙의 타당성 사이의 내적 연관을 사회적 행동이라는 맥락에서 해명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환기시킨 것이다. 이것은 언어적 추상의 부정적 결과들을 넘어서는 중요한 공헌이었다. 그

러나 그는 언어게임의 규칙이 갖는 타당성 문제를 인습적인 사회제도의 (진리, 정당성 문제와 분리된) 사실적 타당성으로 환원시켰다. 이처럼 언어 게임 규칙 속에 수반되는 타당성 문제를 사실적 타당성으로 환원하게 되면, 주어진 언어게임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지양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답변할 수 없게 된다.

하버마스가 비트겐슈타인을 비판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서이다. 하버마스는 비트겐슈타인이 언어의 반성적 구조를 보지 못했다고 비판하였다. 언어의 반성구조란 우리가 말 속에서 말을 주제화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또한 언어가 사용될 때 화자와 청자는 언어의 규칙이 상대방에 의해 준수되고 있는지 여부도 평가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언어행동에서 이러한 반성이 가능한 것은 언어행동의 비언표적 부분에서 타당성 주장이 제기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버마스에게서 이 타당성은 비트겐슈타인의 경우에서처럼 사실적 타당성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맥락을 초월하는 타당성 주장이고, 이 타당성 주장에 대한 상호주관적 승인의 문제였다. 규칙이 상호주관적인 타당성의 의미에서 효력을 갖는다는 것은 상호작용에 참여하고 그 규칙을 행동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이 효력을 가진다는 것을 뜻하며, 가능한 모든 상호작용 참여자들로부터 승인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이처럼 가능한 모든 청자들로부터의 승인가능성이라는 성격 때문에 타당성 주장은 인습적 맥락을 초월할 수 있는 것이다(박영도, 1994: 272).

타당성 주장이 상호주관적 승인을 필요로 한다는 것은 진리주장과 관련된 타당성 주장이 더 이상 의미론적 관계와 화자의 관계에서만 정의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버마스의 형식적 화용론의 관점에서 보면 언어행동의 이중구조에서 의사소통적 언어사용양식을 규정하는 비언표적 부분이 타당성 주장을 규정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합리성이 존재하는 곳은 언어와 세계 사이의 의미론적 관계가 아니라 언어행동의 비언표적 구성요소로 이동하게 된다. 이런 점을 하버마스는 다음과 같은 명제로 표현하였다. “진리는 말의 형식적 구조 속에 반영되어 있는 타당성

주장의 가장 현저한 유형일 뿐 유일한 유형이 아닌 것이다”(Habermas, 1976: 422). 다시 말해서 모든 언어행동들이 진리타당성과 동일한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객관적 세계와 관련된 진리 타당성 주장뿐만 아니라 화자와 청자 사이의 상호주관적인 사회적 세계와 관련한 규범적 정당성 주장, 화자만이 특권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주관적 세계와 관련된 진실성 주장도 언어행동에서 등장하게 된다.

하버마스는 이러한 형식적 화용론을 바탕으로 실천적인 맥락에서 의사소통 행위이론을 전개하였다. 널리 알려져 있듯이 하버마스는 의사소통 행위의 경험적이고 절차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었다. 왜냐하면 하버마스는 경험주의를 넘어서서 포괄적 합리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칸트주의적 형이상학을 극복하려고 하였기 때문이다. 즉 경험주의의 오성과 형이상학의 관념론을 동시에 넘어서고자 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하버마스는 형식적 화용론에 근거하여 의사소통 행위에 있어서 독특한 형태의 ‘이해(理解)’ 개념을 제안하였다. 하버마스의 의사소통행위에서 이해란 발화자의 주장에 대한 청자의 세 가지 차원(타당성, 진리성, 진실성)에 대한 검증 절차에 의해 이루어진다. 즉, 의사소통행위를 통한 이해는 발화자의 주장이 진실하고 정당하며 사실인지를 검증하는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검증의 세 차원 때문에, 의사소통행동은 협소한 도구적 합리성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포괄적 합리성에 근거한 행동이 되어 주관적, 객관적, 그리고 사회적 세계를 포함하게 되는 것이고, 절차적 합리성을 강조함으로써 형이상학의 위험도 피할 수 있는 것이다(Habermas, 1984, 1987). 즉, 하버마스는 계몽주의적 이성개념을 버리지 않고, 도구적 합리성에게 일정한 지위를 부여함과 동시에 그 보다 더 포괄적인 의사소통합리성 개념을 제시함으로써 사회의 재생산에 대한 이론적 설명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¹¹⁾

11) 켈리니코스는 하버마스의 이러한 이해 개념을 강력하게 비판한다. 즉, 타당성 주장에 대해 승인하거나 수용하지 않아도 의미를 이해할 수는 있다는 것이다. 대신 그는 콰이나 데이비슨 등의 논의를 따라 단순한 ‘인간의 본성’이 우리

그러면 하버마스에게 주체는 어떻게 이해되는가? 형식적 화용론과 의사소통행위론에 근거하게 되면 주체란 개인의 고독한 반성의 산물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의 산물임을 알 수 있다. 즉, 주체와 객체를 구분하는 것은 의사소통의 맥락으로부터 분리된 물상화된 형태의 표현이다. 주체 철학에서 주체는 항상 관찰자의 시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므로 주체(거대주체를 포함해서)는 모든 것을 객체화시킴으로써 반성적 구조를 갖출 수 있게 된다.¹²⁾

그러나 하버마스는 계몽적 이성의 이러한 객체화의 시선을 특권적 관점으로 보는 전제를 비판하였다. 객체화의 시선은 상호주관적 관계로부터 분리된 소외된 주관성에서 비롯되는 것이다(박영도, 1994: 283). 소외된 주관성이 던지는 객체화의 시선은 ‘자기’를 포함한 모든 것을 객체화시키는 것이다. 하버마스는 객체화를 가능케 하는 관찰자의 관점이 아니라 상호작용에 참여하는 수행자의 관점을 채택함으로써 자기 자신도 객체화하는 순환과정을 해체할 수 있었던 것이다. 즉, 화자와 청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질문과 대답 속에서 자이는 관찰의 대상이 아니라 대화의 상대로 출현하게 된다. 언어적 의사소통 패러다임 속에서는 항상 세계 속의 그 ‘무엇’에 대해 ‘타자’와 이해도달에 이르는 이중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사소통하는 청자와 화자의 수행적 입장은 이해도달의 동반자로서의 ‘너’와 이해의 대상으로서의 ‘그 무엇’을 구별한다(박영도, 1994: 283). 따라서 하버마스에게 주체는 담론행동을 통해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다시 말해서 하버마스는 칸트의 논의 속에 잠재적인 가능성으로 존재했던 이성의 상호주관적 계기를 다시 되살려내면서 포스트모더니스트들과 다른 방식으로 주체철학을 극복하고 있는 것이다.

이해의 근거라고 주장한다(켈리니코스, 1994: 156~172).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 이는 다시 주체철학에 뒷문을 열어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 12) 푸코는 그 객체화의 시선이 바로 근대적 권력의 감시와 통제의 시선과 일치한다는 점을 밝혔다(푸코, 1987). 진리의 의지가 권력의지의 운반자로 돌변한 것이다. 호르크하이머(Horkheimer)와 아도르노(Adorno)는 자신들의 저서 『계몽의 변증법』에서 계몽적 이성의 이러한 역설을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절망하였다.

4) 포스트모더니즘의 정치철학

하버마스가 계몽의 프로젝트 틀 속에서 혹은 ‘합리성’의 전통 속에서 주체철학을 해체함으로써 독단과 회의를 피하면서 비판과 정당화의 연관을 견실하게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우리가 포스트모더니즘에서 주장하듯이 인간행위에서 무의식의 작용을 진지하게 고려한다면, 혹은 욕망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고려한다면 하버마스의 ‘이해’ 개념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지점들이 나타난다. 언어게임은 왜 합리적으로만 지양되어야 하는가? 다른 방식으로 지양되면(위반 등을 통한 균열내기 등) 안 되는가? 왜 우리는 꼭 합의해야 하는가? 합의한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가? 합의과정에서 차이의 고유성은 인정될 수 있는가? 사회적 합의에 대한 하버마스의 집착은 ‘보편성’에 대한 보수주의적 전통 혹은 자유주의적 전통을 의도하지 않게 유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전통에 대한 비판을 주장하던 하버마스와 모든 이해가 선이해라며 전통의 중요성을 강조한 가다머(Gadamer)가 서로 해석학 논쟁을 벌일 때, 이를 두고 리코어(Ricouer)가 “전통에 대한 비판은, 비판의 전통을 따르고 있는 것이다”라고 일침을 가한 것이 이 대목에서 새삼스럽다(블라이허, 1987). 다시 말해서, 보편성에 기초한 합의에 대해서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는 동시에, 무정부주의적인 회의주의에 빠지지 않는 길은 없을까? 혹은 의식과 무의식을 다 포괄하여 행위를 설명하는 방식이 있지는 않을까? 필자는 푸코의 권력과 욕망에 대한 분석, 들뢰즈(Deleuze)와 가타리(Guattari) 등에 의해 주장되었던 욕망에 의한 ‘탈주’ 주장 등 포스트구조주의의 논의에서 발견되는 ‘차이의 정치학’이 의식이 치우친 행위이론을 보완하면서, 상호공존 혹은 상호보완의 가능성을 열어준다고 보았다.

(1) 푸코의 근대권력 비판과 미시정치학

앞서 언급하였듯이 푸코가 자신의 연구주제는 ‘주체’라고 밝힌 바 있으며, 그는 주체를 생산해 내는 근대적 권력에 천착했다고 할 수 있다.

그의 용어로 하자면 근대적 신체를 만들어내는 근대적 권력의 작용을 추적했던 것이다.¹³⁾ 예를 들어 그가 사례로 들고 있는 광인(狂人)의 경우를 보면 서구에서 17세기 이전에 광인들은 우려와 조롱의 대상이 되기는 했지만 감금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17세기 이후에 그들은 부랑자나 범죄자들과 함께 감금되기 시작한다. 범죄자는 감옥에 갇히고, 광인은 병원에 갇히는데, 이로써 그들은 치료를 받아야 할 환자로 취급되고, 그들의 광기는 치료되어야 할 질병으로 간주된다. 이때 이들을 치료하는 의사들의 어떤 행위도 환자들이 거부해서는 안 된다. 의사는 치료의 주체고 환자는 치료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환자가 자신의 몸에 대해서 무엇을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발언과 결정은 의사가 내리며, 환자는 그것을 수용할 뿐이다. 푸코는 극단적인 사례이긴 하지만 광기의 경우를 들어 말할 수 있는 자와 말할 수 없는 자를 가르는 권력, 치료를 하는 자와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자를 가르는 권력을 발견한다.

광기뿐만 아니라 성(sexuality)과 관련해서도 유사한 근대 권력을 발견하게 된다. 여성의 성욕을 부정적인 것으로 간주하여 비난한다거나, 자위와 같은 어린이의 성행위가 교육의 대상이 되었다든지, (이른바) 정상적이지 않은 성행위를 질병으로 간주하는 것들이 그 예이다. 여성들의 신체와 성욕, 어린이의 신체와 행동, 더 나아가서 성적인 행동과 신체 전체가 의학적 시선의 감시 대상이 된 것이다. 사람들은 이제 이 시선을 의식하기 시작한다. 그러한 시선을 통해 각자는 규범적이고 정상적인 신체, 건강하고 건전한 주체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푸코가 주목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주체를 만들어내는 권력의 작동 방식이다. 즉, 우리 삶의 아주 미세한 영역 혹은 거의 모든 영역에 작용하는 미시적 권력의 작동이 푸코의 관심 영역이었고, 푸코는 이것을 미시정치(micro-politics)라고 이름 붙였다.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 푸코는 학교, 감옥, 정신병원 등을 연구 사이트로 삼았던 것이다.

13) 푸코에 대한 기술은 푸코(1990a; 1990b; 1990c; 1991; 2003), 이진경(2003) 등을 참고하여 정리한 것이다.

푸코의 이러한 권력 개념은 근대의 권력 개념과 차별성을 갖는다. 우선 근대적 의미의 정치는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영역과 구별되는 별개의 장인 데 반해, 이제 정치의 장이 일상의 장과 차별이 없다. 특정한 관점에서 보도록 하는 것, 말할 수 있는 것과 말할 수 없는 것을 가르는 것, 이 모든 것에서 권력이 행사하고 있다. 즉, 모든 장이 정치의 장인 것이다. 둘째는 이미 언급한 것처럼 어떤 주체가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이 행사됨으로써 주체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17세기 서구에서 부랑자나 광인을 감금하면서부터 이들은 인간의 범주에서 벗어났다. 이들은 인간이 아니라 사회적 해충에 불과했고, 이들에게 말할 권리는 없었다. 이들의 수용소는 인간과 인간이 아닌 존재를 나누는 경계선이었다.¹⁴⁾ 또한 이들과 대척점에 있는 치료하는 사람들도 정신의학 개념 및 기술을 통해 ‘의사’와 ‘간호사’라는 주체로 생산되었다.

푸코의 미시권력 작동방식에서 눈여겨 볼 점은 이것이 지배자 없이 작동한다는 점이다. 즉, 특정한 권력의 소유자가 지배하고, 권력이 없는 사람들이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배치(disposition)를 통해서 권력이 작동된다는 것이다. 푸코는 권력행사를 “가능한 행위들의 장을 구조화하는 방식”이라고 정의를 내리는데, 이 권력행사의 장이 바로 배치이다. 이 배치에는 담론, 제도, 건축형태, 규칙, 법칙, 행정적 장치, 과학적 언표, 도덕적 명제 등 이질적인 것의 복합체를 말한다. 예를 들어 정신병원에서 환자를 움직이는 가죽끈, 창문의 창살, 의사의 치료약, 치료기록 등이 배치인 셈이다. 이 배치를 통해 권력은 의사가 없어도 작동을 하게 된다.

권력에 대해 이렇게 접근할 때, 근대 사회에서 권력의 문제를 독점한 것으로 인식되었던 국가(베버의 경우 국가를 폭력의 독점체라고 정의하기도

14) 이러한 사례를 우리나라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반공이데올로기가 국가 권력에 의해 삶의 전 영역에 스며들었으므로 공산주의자는 인간의 영역에서 벗어나있었다. 이들은 대부분의 대중들에게 문자 그대로 머리에 빨이 달린 비인간적 존재로 표상되곤 했다.

했다)권력은 어떻게 이해되는가? 푸코는 근대 국가권력이 작동되는 방식의 새로운 측면에 주목하는데, 통치(government)와 치안(police)이라는 배치이다. 그에 따르면 통치란 “목적에 용이하게 이를 수 있도록 정리된, 사물들의 올바른 정렬이다.” 통치는 그 자체의 확고한 대상을 갖고 있는데, 가령 국부(國富)의 증가, 국민들의 생계에 대한 보장 대책 등이 그러한 통치의 대상이다. 그리고 이러한 통치의 최종 대상들을 획득하기 위해 사물들이 배치되도록 해야 한다. 통치와 더불어 치안은 사람들의 일과 질병, 안전 등을 고려하여 활동하는 것인데, 치안을 통해 국가권력이 사람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 것이다. 통치와 치안을 통해 국가권력은 국민들을 돌보는 사목적(司牧的) 지위를 갖게 되고, 국민들은 그 속에 포섭된다. 이 사목적 권력을 벗어나면 국가로부터 보호되는 것을 포기해야 한다. 그리고 국가의 통치권력은 다른 영역들에서 작동하는 권력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위를 점하게 됨으로써 권력관계의 국가화가 나타나게 된다. 결국 푸코에게 근대적인 국가권력이란 개별화하는 기술과 전체화하는 과정의 복합체인 것이다(Foucault, 1992). 국가권력은 개인들의 의지를 반영하고 대의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반대로 개인들이 국가권력의 의지를 대행하고 실행할 따름이다.

근대권력에 대한 푸코의 비판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 권력에 의해 주체가 생산된다면 이 권력에 대한 저항은 어떻게 가능한가? 좀 더 나아가서 왜 권력이 존재해야만 하는가? 무엇 때문에 기율권력 혹은 생체권력 등이 작동하여 억압이나 규율을 통해 주체를 만들어야만 하는가? 억압이나 규율이 필요했다는 것은 권력에 앞서서 무엇인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부단히 권력행사에 저항하려는 어떤 힘 혹은 지향이 존재한다는 것인데, 이러한 움직임은 권력에 앞선(혹은 선차적인) 욕망, 그리고 욕망에 의한 ‘탈주’의 힘에 주목하도록 만든다.

(2) 욕망, 탈주, 차이의 정치학

욕망이란 무엇일까? 먹고자 하는 욕망, 돈을 벌고자 하는 욕망, 높은 지위에 오르고 싶은 욕망, 지식을 탐구하려는 욕망, 매력적인 이성을 사귀고 싶은 욕망, 좋은 학교를 가고 싶은 욕망 등, 이처럼 욕망을 나열하자면 끝이 없다. 정신분석학자들은 이러한 욕망들 가운데 성욕을 가장 특권적인 욕망으로 이해하지만, 성욕은 다른 일반적인 욕망들 가운데 특별히 강력한(이것도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욕망일 뿐 모든 욕망을 정의해 주는 일반적인 욕망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다양한 욕망을 추상화시켜서 말해 보자면, 욕망이란 무엇인가를 하게 하는 요인이다. 우리는 욕망에 의해 활동하고 사유하는데, 이렇게 보면 욕망은 우리의 행동과 활동, 그리고 사유를 생산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이진경, 2003: 239~246).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익숙한 욕망 개념은 이러한 규정과 반대로 부정적이다. 결핍, 즉 대상의 결여 때문에 그것을 욕망한다는 것이다. 프로이트 이후 정신분석학에서는 특히 근원적인 성적 대상인 어머니의 결여를 욕망한다는 것을 주장한다. 이 입장에서 보면 욕망에 의해 무엇을 생산한다고 해도 실제로 대상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하는 것이 아니게 된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무엇이 결여되어서 어떤 것을 욕망하는가? 예술가가 창작활동을 하는 것은 무엇이 결여되어서 창작활동을 하는 것일까(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니면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고 표현하고 싶기 때문에 창작하는 것일까?

들뢰즈와 가타리는 ‘욕망하는 생산(desiring-Production)’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욕망이 생산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하는데(Deleuze and Guattari, 1990), 여기서 이들은 욕망에 대한 긍정적인 규정을 제시한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욕망을 결핍으로 보지 않는다. 그들에게 욕망은 자연적, 사회적 활동과 동외연적인 것으로서, 묶여있지 않고 자유롭게 떠다니는 에너지, 리비도, 그리고 권력에의 의지라고 불리는 에너지이다(보그, 1995: 147).

그러나 모든 역사를 초월해서 존재하는 욕망이 있는 것은 아니다. 욕

망은 역사적이다. 즉, 오직 특정한 역사적 조건에 의해 가변적으로 변하는 특정한 욕망, 혹은 특정한 욕망의 (푸코적 의미의) 배치만이 존재한다. 예컨대 학교의 배치는 교육과 결부된 욕망의 배치다. 교육하려는 욕망, 교육을 통해 특정한 능력을 생산하려는 욕망, 교육에 의해 훈육된 신체를 만들어내려는 욕망이 그런 배치를 형성하고, 그 배치를 통해 작용하며, 그 배치를 유지한다. 이처럼 “욕망은 배치로서 존재”하고, 역으로 “모든 배치는 욕망의 배치”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배치가 달라지면 욕망의 양상도 달라진다(이진경, 2003: 249~251).

한편, 예술가의 욕망, 자본가의 욕망, 요리사의 욕망과 같이 욕망의 주체를 밝힐 때, 이러한 주체들은 특정한 배치에서 특이성을 표현하는 비인칭적인 특이점에 불과하다. 예컨대, 자본주의적 배치에서 자본가란 그가 착한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무관하게 더 많은 이윤을 욕망하고, 값싼 노동력과 좀 더 높은 생산성을 욕망하는 것이다. 즉, 그 주체는 그 배치에서 형성된 “욕망의 담지자로서의 주체”일 뿐인 것이다. 이처럼 어떤 배치 안에서 개인이 욕망의 주체가 되는 것을 가리켜 ‘영토화’된다고 한다. 모든 배치는 욕망의 흐름을 영토화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게 되는 동시에 — 정확하게 말하면 배치의 변화를 포함하여 — ‘탈영토화’ 그리고 ‘재영토화’의 계기도 갖는다. 예를 들어 전통적 농업생산 방식이라는 배치 속에서 영토화되어 있던 농민이 인클로저 운동에 직면했을 때 토지로부터 탈영토화되어 부랑자로 떠돌다가 도시의 자본가에게 재영토화될 수 있는 것이다(이진경, 2003: 255~256).

그런데 탈영토화가 항상 이처럼 수동적으로 발생하는 것만은 아니다. 배치 속에서 다른 방식을 구상하고 욕망하는 순간 탈영토화의 선, 즉 “탈주의 선”이 그어지게 된다.¹⁵⁾ 이처럼 새로운 선이 시작되는 지점은

15) 여기서 선이 그어진다는 표현을 쓴 것은 들뢰즈의 논의를 참고한 것이다. 들뢰즈는 사건의 철학을 제시하는데, 그가 말하는 사건이란 물체의 운동이 의미를 발생시키는 바로 그 계기에 존재하는 것이다. 예컨대 나폴레옹의 대관식 때 그의 머리 위에 금관이 올려지는 순간, 물리적 운동 — 금으로 만들어진 관의 변화 없이 그냥 머리에 올려지는 물리적 운동 — 은 역사적 의미를 갖게 되는 것

“탈영토화의 침점(尖端)”이라고 부른다(이진경, 2003: 257). 모든 배치는 영토화와 탈영토화의 침점을 갖는데, 영토화가 그 배치 안으로 욕망의 흐름을 포섭하는 성분을 표시한다면, 탈영토화의 침점은 하나의 배치가 분해되기 시작하는 지점, 새로운 배치가 구성되는 지점을 표시한다. 이것은 비판이나 부정이라기보다는 새로운 창조를 의미하는 것이다(이진경, 2003: 258). 따라서 기존의 배치를 파괴하기 보다는 새로운 배치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타당하며, 권력의 지대를 횡단하면서 끊임없이 이동하며 새로운 영토를 생성한다는 점에서 ‘유목’(nomad)이라고 부른다. 물론 모든 탈주의 선이 항상 긍정적인 것은 아니고 파괴적인 것으로 그칠 수도 있으니, 파시즘이나 테러리즘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¹⁶⁾

욕망의 배치가 이처럼 영토화, 탈영토화, 재영토화의 계기를 갖게 되기 때문에 욕망의 배치 속에는 서로 상반된 방향이 존재한다. 기존의 배치를 지속하려는 욕망과 그것을 넘어서서 다른 배치를 지향하는 욕망. 이런 의미에서 보면 욕망의 배치는 (푸코를 따라서) 권력의 배치라고도 할 수 있다. 권력과 욕망을 이처럼 동일시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 내부에서 작동하는 권력, 즉 욕망이라는 이름으로 작동하는 특정한 권력을 인식할 수 있다.¹⁷⁾ 이렇게 보면 권력은 외부의 적이 소유하고 있어서 그것을 탈

이다. 그래서 선이 그어진다는 것은 계속 존재하는 것이라기보다 잠시 사건으로 존재했다가 사라지는, 그러나 의미가 발생하는 상황을 말한다. 플라톤과 달리 스토아학파의 유물론을 수용하고 있는 들뢰즈는 물질이 일차적인 원인이라고 보며, 의미란 물체의 표면에서 발생하는 표면효과라고 보았다. 그는 실제로 지속되는 것보다, (잠재했다가) 잠시 존재했다가 다시 사라지는 것이 철학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런 것은 그가 존재의 철학보다 생성의 철학 전통을 따르고 있는 것을 말해준다. 들뢰즈의 사건의 철학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은 이정우(1998)를 참조할 것.

- 16) 들뢰즈는 권력의 파시즘에 대항하여 욕망의 사회적 구조화에 이르는 능동적이고 긍정적인 탈출선을 제시한 바 있다(들뢰즈, 1992: 47).
- 17) 빌헬름 라이히는 『파시즘의 대중심리』에서 나치즘의 사례를 통해 가족의 가부장적 권위주의가 억압을 욕망하도록 하여 파시즘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고, 파시즘을 적극적으로 확대재생산하는 메커니즘을 규명한 바 있다(라이히, 2006).

취하거나 그것에서 벗어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단일한 발상이라는 점을 알려준다. 이것은 기존 사회주의 국가에서 권력을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장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영역에서의 억압의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사실이다.

물론 내부의 권력뿐만 아니라 외부의 권력 작용에 대한 탈주도 중요하다. 근대적 국가권력은 통치의 정당성을 위해 ‘국민적인 보편적 이해관계’를 다수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여 강요한다. 그러나 이러한 보편적 이해관계란 이미 존재하는 어떤 척도, 어떤 가치, 어떤 견해(여론)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지 그 반대는 아니다(Deleuze, Guattari, 1987: 105). 그러므로 다수성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욕망의 배치를 바꾸고자 하는 탈주가, 내부의 권력으로부터의 탈주와 병행할 때, 진정한 ‘혁명’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혁명은 차이를 존중하고 보존한다. 다양한 행동과 사유를 동일시하려는 권력의 배치, 욕망의 배치에 맞서서 새로운 탈주를 생성시키도록 배치를 바꾸는 것이 바로 이러한 노력이며 이것을 ‘차이의 정치학’, ‘유목’ 혹은 새로운 ‘주체’만들기라고 이름 붙일 수 있다(이진경, 2003: 487~492).

필자는 이러한 ‘차이의 정치학’과 ‘의사소통행위’가 서로를 보완한다고 본다. 즉, ‘차이의 정치학’은 보편성에 기초한 합의에 대해서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도록 견제할 수 있으며, 형식적 화용론에 기초한 의사소통행위는 무정부주의적인 회의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견제해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부연하자면, 탈주는 기존의 권력/욕망의 배치에서 벗어나려는 창조적인 흐름이지만 파시즘이나 테러리즘과 같은 비극적 결말을 맞이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므로 탈주의 방향에 대한 지속적인 공론화가 필요하다. 반대로 사회적 합의를 지향하는 의사소통행위를 통한 합리적 사회진화는 보편성에 근거한 정당화가 탈주하려는 욕망을 억압할 가능성이 상존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차이를 생성시키려는 지속적인 흐름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 좀 더 정확하게 필자의 입장을 밝히려고 한다면, ‘의사소통행위’와 ‘차이의 정치학’ 사이, 즉 ‘합의’와 ‘탈주’

사이, ‘소통적 이성’과 ‘욕망’ 사이의 무한한 왕복운동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5) 포스트모던 계획: 합의와 탈주 사이

계획이란 사건¹⁸⁾들이 발생하는 기존의 경로를 바꾸고자 의도를 가지고 개입하는 것이다(Campbell and Fainstein, 1996: 6). 이것을 우리의 용어로 바꾸어 보면 계획이란 기존의 욕망/권력의 배치를 생산, 재생산하여 욕망을 영토화시키려는 노력이며, 공공계획의 경우는 근대성의 공간적 표출에 개입하는 국가적 통치의 권력기술이며, 국민적인 보편적 이해관계를 대변한다는 정당화 논리에 기초하여 다양한 욕망을 영토화시키는 일련의 국가전략이다. 그렇다면 이 글에서 지금까지 살펴본 포스트모더니즘의 근대 비판에 비추어 근대적 계획(계획이론)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떻게 설정될 수 있는가?

포스트모더니즘의 도전에 대응하고자 하는 계획이론 분야의 새로운 모델 제시노력은 세 가지로 대별된다(Fainstein, 2000). 첫째는 의사소통적 모델, 둘째는 신도시주의(new urbanism)모델, 셋째, 정의로운 도시 모델이다.

첫 번째 모델은 의사소통적 합리성¹⁹⁾을 도입하여 계획이론을 재구성하는 패치 힐리(Patsy Healey)의 시도를 통해 잘 드러난다(Healey, 1996; 1997). 힐리는 ‘협력적 계획(collaborative planning)’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협력적 계획은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를 통해, 파편화된 사회의 문화적으로 서로 다른 집단들 간의 네트워크를 이어줄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다문화 간 의사소통, 상호이해와 신뢰 등을 회복시키도록 돕는 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사회의 제도적 능력(institutional capacity)을 구축하

18) 여기서 두 저자들이 언급하는 사건은 들뢰즈의 ‘사건’ 개념은 아니고, 일반적인 용법으로 사용된 것이다. 오히려 우리가 살펴본 ‘배치’에 가까운 뜻이라고 하겠다.

19) 좀 더 정확하게는 의사소통적 윤리(communicative ethics)이다(Healey, 1997: 311).

는데 도움을 주는 계획이 협력적 계획인 셈이다(Healey, 1997).

둘째 모델은 도시계획에 있어서 물리적 디자인에 중심을 두는 전통(Ebenzer Howard, Frederic Law Olmstead, Patrick Geddes 등)을 그대로 승계했다고 할 수 있다. 이 모델에서는 대중들이 원하는 것을 수용하는 동시에 다양성을 담아낼 수 있는 도시형태를 물리적으로 디자인하는 것이 중요하다(FAINSTEIN, 2000: 462~463).

셋째 모델은 정의로운 도시 모델로서 이 모델에 포함되는 학자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급진적 민주주의자들이고, 다른 하나는 정치경제학자들이다. 첫 번째 부류가 앞의 의사소통적 모델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차별되는 것은 이들이 더 급진적인 참여민주주의(직접민주주의에 가까운)를 지지한다는 것이다. 둘째 부류는 데이비드 하비(David Harvey)로 대변되는 입장으로서 사회적 편익의 공정한 배분을 도덕적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전제하고 있다(FAINSTEIN, 2000: 467).

한편, 포스트구조주의의 논의를 어느 정도 수용하여 계획이론을 발전시키려는 시도도 눈에 띈다. 라캉의 욕망에 대한 철학적 해석, 한나 아렌트(Hanna Arendt)의 ‘해석학에 입각한 논쟁적 의사소통행위(hermeneutically predicated agonistic communicative actions)’ 논의²⁰⁾를 바탕으로 하여, ‘논쟁적 계획모델을 제시한 마이클 군더(Michael Gunder)의 시도가 주목할 만하다(Gunder, 2003). 군더는 ‘확실성’이라는 환상을 추구하는 계획 대신에 실천적 이성(phronetic reason)²¹⁾과 ‘불일치 윤리(dissensus ethics)’에 기초하여, (참

20) 아렌트의 논쟁적 토론(agonistic debate)은 하버마스가 집착하는 합의(consensus) 대신, 불일치(dissensus)의 윤리를 근간으로 하는데, 불일치의 윤리는 갈등을 회피하지 않고, 생산적인 것으로 간주한다(Gunder, 2003: 280). 아렌트는 형이상학적인 보편적 진리에 대해 거부하면서 자유를 ‘새로운 시작’(new beginnings)을 지속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자유는 능력이란 순전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이며, 이것이 모든 인간의 행동을 작동케 하고, 영감을 불어넣는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위대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생산될 수 있는 숨겨진 원천이다”(Arendt, 1961: 169. Gunder, 2003: 284에서 재인용).

21) 군더가 자신의 논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실천적 이성이란 용어는 아리스토텔레스가 구분한 지식의 세 가지 구분, 즉 분석적이고 과학적인 지식(episteme), 기

가자들이) 논쟁적 토론을 통해서 (라캉적 의미의) 타자²²⁾의 욕망, 과거의 상처, 쾌락(jouissance) 등에 대면토록 함으로써 지배적 이데올로기의 굴레로부터 벗어나도록 도와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Gunder, 2003: 307). 특히 계획이 바람직한 미래를 만든다고 할 때, 과연 누구에게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 계속 질문해야 한다고 주문한다(Gunder, 2003: 285).

군더의 논쟁적 계획모델에서 제시하는 논쟁적 토론은 ‘합의’와 ‘탈주’ 사이의 왕복운동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점에서 앞으로 새롭게 구성될 계획모델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²³⁾ 공공 계획이 국가적 권력/욕망의 배치라면, 계획행위는 이 배치의 재생산과 창조 사이의 긴장 가운데, ‘합의’와 탈주의 사이의 왕복운동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포스트모더니즘에 의해 자극을 받은 계획이론은 이러한 긴장과 왕복운동을 포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이 방향은 공론영역의 회복과 동시에 다양성의 존중 및 자유의 확대를 추구하는 계획(통일되지 않는 논쟁적 공론영역의 회복)을 통해 정치적 전체주의 극복이라는 과제를 설정해 갈 것이다.

술적이고 실행적인 지식(techne), 판단의 기술로서의 실천적 지식(phronesis)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

- 22) 라캉적 의미에서 ‘타인’은 푸코와 정반대로 사용된다. 푸코는 동일자에 의해 억압된 것들을 타자라고 한 반면, 라캉은 개개인의 외부에 있는 것으로서 언어, 혹은 기표의 자리, 상징계, 무의식을 의미한다. 따라서 개체가 여기에 포섭되어 사회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주체로 거듭나게 되는 질서이기 때문에, 푸코적 의미에서 동일자에 가깝다(이진경, 2003: 44).
- 23) 이런 맥락에서 해리슨(Harrison, 2001)의 논문도 흥미로운 제안을 한다. 해리슨은 문학에서 포스트모던 계획이론의 가능성을 찾고 있다. 그는 비극(tragedy)의 비전에 주목을 하는데, 비극의 비전과 목표지향적 행위를 결합을 통해, 비록 유토피아적 꿈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없으며, 계획이 예기치 않은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획에의 의지(will to plan)’을 의도적으로 사용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문예이론에 기댄 타인지 비유적이긴 하지만, ‘비판’과 ‘탈주’의 왕복운동이라는 의미로 볼 때 수긍이 가는 제안이라고 생각된다.

3. 결론

처음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벼룩시장에 들어갈 때는 계획가들에게 뭔가 지도나 나침반과 같은 유용한 물건이라도 선물할 요량이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복잡하고 깊은 이 시장에서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 횡단 거리를 줄여보기 위해 주제도 좁게 잡는 등 노력했건만, 시장을 둘러보고 나서 가져온 것은 선물이 아니라 오히려 어려운 수수께끼, 그나마 잘 이해도 되지 않는 수수께끼만 잔뜩 집어 들고 왔다.

예를 들어, “권력/욕망의 배치를 새롭게 창조할 계기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탈주’가 폭주로 변하거나 무정부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불일치 윤리에 기초한 논쟁적 토론을 진행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 왕복운동은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수행되어야 할 것인가?”, “왕복운동의 행로는 과연 미리 마련될 수 있는가?” 등이다.

칸트는 “회의주의는 인간이성의 휴식처이다. 이 휴식처에서 이성은 지금까지의 독단적인 편력을 반성하고, 금후의 행로를 좀 더 확실하게 택할 수 있기 위해 현재 위치하고 있는 지역의 약도를 그린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우리의 용어로 이를 다시 해석하자면 ‘탈주’는 ‘합의’가 달려가는 고속도로의 휴게소이다. ‘합의’가 계속 자신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수시로 ‘탈주’라는 휴게소에 들리지 않으면 안 된다. 이 휴게소에서 새로운 인식의 지도를 그려보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이제 같이 모여서, 불일치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유로움으로, 이 지도 만들기에 동참하기를 감히 촉구해 본다.

❖ Abstract

Postmodernism and Future of Planning:
Back-and-forth motion of consensus and flight

Lee, Sang-Heon

This paper has purpose to investigate the challenge from the postmodernism against modern rationality as a resources of criticism on modern planning theory and suggest direction of development of modern planning theory based on the investigation. Discovery of modern subject has made modern way of thinking possible. However, postmodernists has shaken the foundation of modern thought by insisting that the modern subjectivity does not own knowledge and power but it is constituted by knowledge and power. Some modernists, in particular, Jurgen Habermas, has tried to overcome the subject-oriented philosophy by evolution of modernism. In the paradigm of his communicative action theory, subject and other come to have consensus about something in the world. Thus, subjectivity is understood as socially constituted by discourse. However, his theory of communicative action has weakness in including the issue of unconsciousness and desire. At this point, the agenda of knowledge-power relation explained by Michel Foucault, and the concept of flight(fuite) has complementary function. Foucault defined the practice of power as way of structuring the place of possible actions. The place of practice of power is disposition. Modern state implements its power by disposition of government and police. The power of modern state does not reflect and represent the individual's will, but individual exercises and represents the will of state. However, the fact that repression and discipline is required means that there is something pre-exists before power. Therefore, we focus the desire before power and force of flight by desire. According to Deleuze and Guatarri, desire is historical. In other words, there is only specific disposition of particular desire which is flexible to specific

historical condition. In this case, subject becomes carrier of desire which is formed in specific disposition. It is called territorization. All disposition operates in the way of de(re)territorization as well as territorization. De(re)territorization means to design and desire different way in a disposition. And it traverses the terrain of power and proliferates all the time. Thus, it is called as nomad. Therefore, if public planning can be called as disposition of power/desire, planning action should be deployed towards the promoting the tension of reproduction and creation of the disposition, i.e., back-and-forth motion of consensus and flight.

Keywords: Modern planning, subject, power, disposition, flight



참고문헌

- 김현. 1989. 『미셸푸코의 문학비평』. 문학과지성사.
- 드레피스·라비노우. 1989. 『미셸 푸코: 구조주의와 해석학을 넘어서』. 서우석 옮김. 나남.
- 들뢰즈, 질. 1993. 『대담: 1972~1990』. 김종호 옮김. 솔.
- _____. 1995. 『들뢰즈의 푸코』. 권영숙·조형근 옮김. 새길.
- 라이히, 빌헬름. 2006. 『과시즘의 대중심리』. 황선길 옮김. 그린비.
- 라캉, 자크. 1994. 『욕망이론』. 권택영 외 편역. 문예출판사.
- 리오타르, 장 프랑수아. 1992. 『포스트모던의 조건』. 이삼출 옮김. 민음사.
- 박영도. 1994. 『현대 사회이론에서의 비판 패러다임의 구조변동 — Kant, Hegel/Marx/Habermas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 보그, 로널드. 1995. 『들뢰즈와 가타리』. 이정우 옮김. 새길.
- 보드리야르, 장. 1992a. 『기호의 정치경제학 비판』. 이규현 옮김. 문학과지성사.
- _____. 1992b. 『시뮬라시옹: 포스트모던 사회문화론』. 하태환 옮김. 민음사.
- 블라이히, 조셉. 1987. 『현대 해석학』. 권순홍 옮김. 한마당.
- 이정우. 1998. 『시뮬라크르의 시대-들뢰즈와 사건의 철학』. 거름.
- 이진경. 2003. 『철학의 외부』. 그린비.
- 장육. 1992. 『계획이론에의 접근(I): 합리적 계획모형의 해체』.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논총》, 제30권, 70~86쪽.
- 칼리니스쿠, 마테이. 1993. 『모더니티의 다섯 얼굴-모더니티/아방가르드/데카당스/키치/포스트모더니즘』. 이영욱 외 옮김. 시각과 언어.
- 캘리니코스, 알렉스. 1994. 『포스트모더니즘 비판』. 임상훈·이동연 옮김. 도서출판 성립.
- 푸코, 미셸. 1987. 『말과 사물』. 이광래 옮김. 민음사.
- _____. 1990a. 『성의역사 I』. 이규현 옮김. 나남출판사.
- _____. 1990b. 『성의역사 II』. 문경자·신은영 옮김. 나남출판사.
- _____. 1990c. 『성의역사 III』. 이혜숙·이영목 옮김. 나남출판사.
- _____. 1991. 『감시와 처벌』. 박홍규 옮김. 나남출판사.
- _____. 2003. 『광기의 역사』. 이규현 옮김. 나남출판사.
- 하버마스, 위르겐. 1997. 『도덕의식과 소통적 행위』. 황태연 옮김. 나남출판사.
- 하비, 데이비드. 1994. 『포스트모더니티의 조건』. 구동화·박영민 옮김. 한울.

Alexander, E. R. 2001. "The planner-prince: interdependence, rationalities and post-communicative practice." *Planning Theory and Practice* 2(3), pp. 311~324.

Arendt, H. 1961. *Between Past and Future*. London: Faber.

- Beauregard, R. 1989. "Between Modernity and Postmodernity: The Ambiguous Position of U.S. Planning." in Campbell, S. and S. S. Fainstein(eds.). 1996. *Readings in Planning Theory*. Blackwell Publishers.
- Campbell, S. and S. S. Fainstein(eds.). 1996. *Readings in Planning Theory*. Blackwell Publishers.
- Chaitin, G. D. 1996. *Rhetoric and Culture in Laca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avidoff, P. 1965. "Advocacy and Pluralism in Planning." *Journal of the American Institute of Planners*, 28(2)
- Deleuze, G. and F. Guatarri, (trans), R. Hurley, M. Seem and H. R. Lane. *Anti-Oedipus: Capitalism and Schizophrenia*.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_____, (trans) B. Massumi. 1987. *A Thousand Plateaus; Capitalism and Schizophrenia II*. Univ. of Minnesota Press.
- Etzioni, A. 1968. *The Active Society: A Theory of Social and Political Processes*. New York: Free Press.
- Fainstein, S. 2000. "New Directions in Planning Theory." *Urban Affairs Review*, Vol. 35, No. 4, March 2000, pp.451~478.
- Faludi, A. 1973. *Planning Theory*. London: Pergamon Press.
- Foucault, M. 1992. "Governmentality." *The Foucault Effect: Studies in Governmentality*.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Friedman, J. 1973. *Retracking America: A Theory of Transactive Planning*. New York: Anchor Books.
- Giddens, A. 1990. *The Consequences of Modernity*.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Gunder, M. 2003. "Passionate planning for the other's desire: an agonistic response to the dark side of planning." *Progress in Planning* 60, pp.235~319.
- Habermas, J. 1976. "Was heißt Universalpragmatik." in *Vorstudien und Ergänzungen zur Theories des kommunikativen Handels*. 1984. Suhrkamp.
- _____. 1984. *The Theory of Communicative Action*. London: Heinemann Educational.
- _____. (trans) F. Lawrence. 1987. *The Philosophical Discourse of Modernity: Twelve Lectures*. Cambridge: Polity Press.
- Harrison, P. 2001. "Romance and Tragedy in (Post) Modern Planning: A Pragmatist's Perspective." *International Planning Studies*, Vol.6, No.1, pp.69~88.
- Healey, P. 1996. "The communicative turn in planning theory and its implications for spatial strategic formation." *Environment and Planning: B*, 23(6), pp.217~234.
- _____. 1997. *Collaborative Planning: Shaping Places in Fragmented Societies*. London: Macmillan.

Lindblom, C. 1959. "The Science of 'Muddling Through'." *Public Administrative Review*, 19(2).

Lyotard, J. F. 1985. "Defining the Postmodern." ICA Documents 4.

Wittgenstein, L. 1978. *Philosophical Investigations*. Basil Blackwell.

K C I